

등굣길·학식당·동아리실 북적... “대학생활 이제야 실감나”

Q 르포

‘노 마스크’ 캠퍼스 가보니

먹자골목 등 대학가 전반 활기 거주비·식비 경제적 부담 고민도 “답답하게 공부해온 보상 받는 기분”

“답답하게 공부해 왔는데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부터 마스크와 함께했던 천희서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1학년생은 ‘노 마스크’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전부터 도서관으로 향하던 천 씨는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셔서 동기부여가 된다”고 당차게 답했다.

‘노 마스크’와 함께 캠퍼스 로망도 돌아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의 거주·식비 등 경제적 부분에 대한 고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캠퍼스 생활 기대감 고조

1교시 시작 직전인 8시 40분께 찾은



13일 오전 학생들로 북적거리는 고려대 전경.



13일 오전 경희대 정문 교정 전경 /조인영 영상취재기자 iv@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정문 앞에는 강의를 듣기 위해 분주하게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지각할까봐 서두르는 학생, 아침을 학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식당으로 향하는 학생 등 다양한 움직임을 마주할 수 있다.

일명 ‘코학번(코로나19 당시 입학한 학생)’으로 불리는 권나영(중국어학과·3학년) 학생은 “선후배 사이의 교류가 기대된다”며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당시에는 다들 집에 있다가 나오는 상황이다보니 열정도 없고, 형식상 하는 것 같아 재미가 없었는데 활

발한 분위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동아리관에는 다양한 동아리 홍보 포스터가 외벽을 채우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사람은 한복을 입고 캠퍼스를 활보하는 김희원(전기전자공학부·4학년) 학생이다. 그는 “날씨가 좋기도 하고, 총학생회실에서 일할 것이 있어 근무복으로 입었다”며 “평소 한복과 전통의상에 관심이 많아 종종 입고 다닌다”고 설명했다.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캠퍼스 생활 기대감도 날다르다. 고려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사비나(Sabina·21학년) 학생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친구들도 사귄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모국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안 쓰고 생활해 왔었다”고 말했다.

◆ 식비 아끼고자 ‘학식’... 대면 강의 재개에 ‘전·월세’ 가격도 올라

캠퍼스 생활의 기대감과 별개로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더해지고 있다. 경희대의 권나영 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식이 가성비가 좋았다,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학식과 대학가 주변 식

당들의 가격이 비슷했다”며 생활비 부담을 토로했다. 통학을 하고 있는 권 학생은 식비에 교통비까지 쓰다 보면 매일 만 원 안팎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된다는 설명이다.

신입생인 경희대 김성현(경영학과·1학년) 학생도 “마스크를 벗으면서 교수님,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어 정이 느껴진다”면서도 “학식 말고는 다 비싸기 때문에 학식을 먹으려고 하는 편”이라고 식비 부담을 드러냈다.

자취를 하고 있는 고려대 박현민(영어영문학과·20학년) 학생 역시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자취하는 사람들은 혼자 식재료를 사는 것이 오히려 부담되기 때문에 학식이나 외식을 주로 하게 된다”며 식비 고충을 전했다. 대학가 주변으로 폭등한 전·월세 상황에서 대해서는 “1년 반 전에 자취방을 이미 구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월세가 올라 방을 빨리맡기고 민하는 경우를 봤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구한 고려대 앞 전세 가격은 재작년 시세로 약 2억 원 상당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시의회 “3년간 1095건 민원 직접 처리”

3484건 접수... 2389건 이송 처리 도시계획·주택공간 분야 민원 최대

최근 3년간 서울시의회에 3400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약 800건에 그쳤던 민원은 2021~2022년엔 매년 1300건을 웃돌았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806건, 2021년 1369건, 작년(11월30일 기준) 130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시의회에 들어온 3484건의 민원을 의견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

정 요구가 16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안 건의 783건, 의의 제기 713건, 기타(하소연·감사 등) 287건, 문의 확인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관 상임위원회 기준으로는 도시계획 균형 및 주택공간 분야 민원이 98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환경수자원 811건, 교육 328건, 도시안전 285건, 교통 206건, 의회사무처 176건, 문화체육 134건, 보건복지 113건, 기획경제 110건, 행정자치 47건 순이었다. 기타(자치구 등)는 291건이었다.

시의회는 이중 1095건을 직접 처리했고, 2074건은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

같은 집행기관에, 나머지 315건은 자치구·중앙부처 등 타 기관에 이송했다.

시의회는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은 해당기관(서울시, 자치구,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해 좀 더 세심하게 처리될 수 있게 했다. 이송시에도 관계 기관과 민원인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여러 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이나 고충민원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 활동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연내 서울형 키즈카페 50곳 오픈”

서울시는올해 서울형 키즈카페 50개소를 개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모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실내놀이터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등 총 5개소의 서울형 키즈카페가 조성됐다.

시는 연내 95곳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중 50곳의 문을 연다는 목표다. 나머지는 내년에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놀이와 돌봄 기능에 집중해 공공성을 높이고 식음료 판매를 금지해 영리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민



서울형 키즈카페(종로구 혜화동점) 운영 모습. /서울시

간 키즈카페와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 1인당 10㎡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쾌적함을 높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블록쌓기·쌍방향 미디어플레이와 같은 놀이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해 운영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인천시-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13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의원 허종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LH인천지역본부장, iH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였으며, 예산 마련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개소 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비욘드 조닝’ 관련 용역 착수

공간혁신구역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는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인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해 이달 중 관련 용역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비욘드 조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용도지역 체계다. 이를 적용하면 주거·업무·상업 등 정해진 땅의 용도에 구애되지 않고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의 여건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 선정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는 비욘드 조닝을 제도화한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연내 선정해 2024년 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변화와 새로운 공간 수요에 대응해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관리 체계 및 단계적 실현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6 | 해질 / 18:38

3월 14일 (화) 음력 : 2월 23일

수도권 날씨 2 ~ 15°C

운중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인천 -1/14, 동두천 0/15, 가평 -4/15, 파주 -1/14, 서울 2/15, 양평 -3/16, 수원 3/15, 용인 3/15, 평택 -1/17, 백령도 6/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美 뉴욕주 금융당국, 시그니처은행 폐쇄...SVB 이어 두번째
▲ 美, 중국경제 위해 아·태 동맹들과 ‘무기 호환성’ 강화



▲ 中 리창 신임총리 “5% 성장 쉽지 않아...개혁개방 지속할 것” /사진 뉴시스
▲ 中 시진핑 “대만과 안전한 통일 실현...분리시도·외부간섭 반대”



▲ 日 “北미사일, 日EEZ 비행·피해 확인 안 돼”
▲ 日, ‘노마스크’ 실시...출·퇴근 전철·병원 등서는 착용 권장 /사진 뉴시스